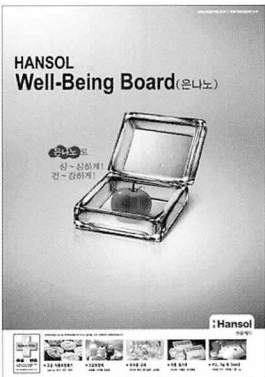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분쟁 한국 승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 백상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10월30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 판정을 내리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토록 결정한 것이 WTO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는 WTO 최종보고서가 지난 28일 공식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이후 1년 4개월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루하게 계속됐던 인도네시아와의 백상지 관련 무역분쟁은 한국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 한솔제지, 은나노 Well-Being Board 출시



한솔제지가 최근 식품용기인 펄프보드에 은의 살균효과를 결합시킨 'Well-Being Board(은나노)' 지를 출시,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한솔제지의 'Well-Being Board(은나노)' 지는 100% 펄프로 만들어진 최고급 포장용지로서 형광물질이 전혀 없으며 증발잔유물도 기준치보다 적은 웰빙보드지에 은나노를 코팅 처리한 친환경 제품이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 측은 "최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용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은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음식물의 신선도 유지 및 부패방지(항균, 탈취)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 웰빙보드에 은나노를 코팅하게 된 것이다"며 "이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지난달 10월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이 확보된 제품이라는 엄격한 시험검사를 통과하여 위생·안전 품질인증서(HS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식품용 판지시장 용도는 물론 화장품, 의약품 유아용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의 신선도 유지, 항균기능을 필요로 하는 식품용 박스 및 테이크 아웃 컵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 및 유아용 책자, 종이블럭, 교재물로에도 사용됨은 물론, 제과용, 공산품용 등의 각종 용기류 제품과 게임용 카드, 의류용 꼬리표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 한솔제지, 고객만족서비스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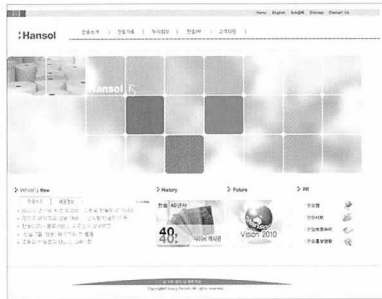
한솔제지는 지난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05년도 고객만족서비스조사(CS)를 실시했다.

고객만족서비스조사는 최상의 고객만족도를 목표로 품질, 서비스, 회사이미지 등을 평가해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한솔제지는 국내 거래선 곳곳마다 영업사원 및 CS요원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을 파견,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장 요구사항을 취합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거래선의 경우에는 해외지점망을 활용하면서 수출 담당 영업사원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원들이 같은 기간 조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결과분석을 통해 2006년도의 실천과제 및 개선사항 점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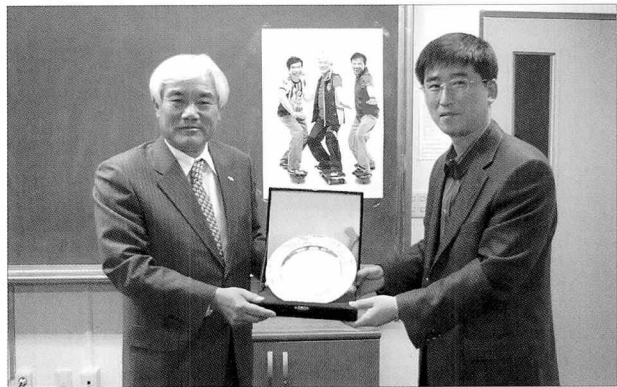
## 한솔그룹 홈페이지 개편



한솔그룹은 40주년 기념 사사 제작에 이어 한솔그룹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지난 40주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 역사관 및 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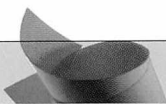
맵, VISION 2010, e-북 형태의 웹사보 및 웹브로슈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고객 시선에 맞춰 최신 trend Design과 동영상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고객문의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모니터링 등의 콘텐츠를 강화했다.

## 김인중 신무림제지 사장, 동대 대학원서 강연



김인중 신무림제지 사장은 지난 11월14일 오후8시부터 1시간40분 동안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인쇄화상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제지산업의 유통구조'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번 강의는 국내 아트지 전문기업인 신무림제지가 유럽을 비롯한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국내 제지시장을 비교, 국내 인쇄산업과 제지유통시장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과 전망에 대해 밝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동국대 대학원생들은 제지전문가를 능가하는 심도 깊은 질문을 쏟아내는 등, 제지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강연을 마치고 학교 측이 수여한 감사패를 받았다.



## 무림 · 신무림제지, 신세대풍 사가 '눈길'



무림제지 · 신무림제지는 기존의 딱딱하고 단조로운 사가 대신 힙합, 헤비메탈, 락, 발라드 등의 신세대풍 사가를 제작해 임 ·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일 아침 사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타고 있는 이 사가는 기존 사가의 격식을 파괴한 것으로 록밴드 헤이데이가 제작

에 참여했다. 김인중 사장은 "전 임 ·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가를 제작하게 됐다"며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사가처럼 변화와 다양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신호제지, 고급 아트지 시장 진입



신호제지(대표 김종곤)는 최근 고급 아트지인 '그랑프리'를 출시하고 길거리 마케팅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신제품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호제지는 지난 10월20일 을지로 및 영등포 지역 일대 등 인쇄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길거리 마케팅 행사를 개최하고 임직원들이 각 업체들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제품소개 책자,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특히 이번 길거리 마케팅에서는 김종곤 대표이사외 각 공장 공장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신제품 홍보행사를 진두지휘함으로써 많은 눈길을 끌었다. 또한 10월21일에는 거래처, 관련 단체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호텔에서 신제품 설명 세미나를 개최, '그랑프리'를 적극 홍보했다.

김종곤 사장은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아트지를 개선한 제품인 그랑프리 아트지는 6개월간의 고객조사를 통한 시장파악과 연구개발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다. 고급 아트지인 그랑프리 출시를 계기로 신호제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고 밝혔다.

## 신무림제지, 무림 B2B e-Sales

신무림제지는 지난 10월24일부터 29일까지 B2B e-Sales(moorim.papemarketplace.co.kr)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초청, 'SE 가을 운동회' 행사를 가졌다.

'SE 가을 운동회'는 지난 9월 개최한 '친절한 SE, 받go 또 받go' 이벤트의 후속편으로 오전 시간 동안 웹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다. 매일 낮 12시까지 근지암 물류창고로부터 최고의 주문량을 기록한 고객 2명에게 시상하는 100m 달리기상, 가장 먼저 1.5톤 이상을 주문한 고객 1명에게 시상하는 주번상, 행사기간(6일) 동안 가장 많은 주문량을 기록한 고객에게 주는 마라톤상 등 시상내역도 다양했다.

## 한국제지, 온산공장 기업설명회 개최

한국제지(주)(대표 전원중)는 지난 10월20일 울산에 위치한 온산공장에서 제지담당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 적극적인 회사 홍보활동을 가졌다.

이날 기업설명회의 핵심은 단연 초지 4호기(PM4) 증설에 관한 사안이었다. 한국제지는 초지 4호기 건설을 마치는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신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원중 한국제지 사장은 이날 기업설명회(IR)에서 "초지 4호기는 연간 17만톤을 생산하는 설비로 증설이 완료되면, 온산공장은 연간 52만톤 이상의 제품생산력을 보유하며, 단일사업장 기준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비 증설로 한국제지는 '품질향상'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방침이며 최신 설비의 도입과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의 개선으로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삼원페이퍼, 콩쿠르 디자인 공모전2005

서울 중국동에 위치한 삼원페이퍼갤러리가 11월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 한달간 '콩쿠르 레터헤드 디자인 공모전 2005' 한 · 일 공동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콩쿠르 레터헤드 디자인 공모전 2005는 '스테이셔너리 세트'(Stationery Set)라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저변확대와 디자인 산업의 창달에 기여한다는 기치로 한 · 일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의 아 · 태 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추진중인 고령화 사회 대책 프로젝트인 'Successful Ageing'라는 지정주제 부문 및 자유부문으로 나눠 치러졌으며 금, 은, 동, 가작, 학생장학상 총 44점이 선정됐다.

지정주제 부문 금상은 'Successful Ageing'을 세련된 로고 · 마크로 표현한 김재숙씨(이화여대 디자인 대학원)가 차지했으며, 자유주제 부문 대상은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완성도 높은 로고 · 마크를 디자인한 윤세미양 외 3명(단국대학교 예술조형학부 시각디자인학과)이 영광을 안았다.